

# 본관 동편 우뚝 솟은 5층탑, 안암에 정교한 고딕미학 구현

##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6

### 보성전문 도서관(1935~1937), 그 건축적 연원을 찾아서

보성전문은 안암동 신교사의 공사 전부터 이미, 1935년의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거국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도서관, 강당,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들까지 동참했고, 1935년 6월 도서관 건축이 시작된다. 《동아일보》(1935.8.17)는 곧 '우리가 쌓는 金字塔: 大普專의 圖書館'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며, 건물 조감도도 게재한 바 있다.

#### 보전 창립30주년 기념사업 1교수1연구실로 부름을 사

대지는 본관 북동쪽 언덕의 터를 닦아 마련했고, 설계는 본관에서처럼 박동진이, 시공은 후지타 고오기사와 함께 본관 공사에 참여했던 후지타 겐이치(藤田源市)가 맡았다. 건축양식은 본관을 계승한 석조고딕풍이며, 구조도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와 화강암의 복합체다.

그러나 도서관의 L-자형 평면은 납작한 H-자 평면의 본관과 대조적이다. 여기서 L-자 평면의 짧은 날개축이 본관 쪽을 향하며 직교부 모서리에 5층탑이 서는데, 두 건물의 배치는 일종의 직교체계를 이룬다. 후일 본관 남서측에 서관이 도서관의 대응물로 들어서서 전체 구성에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

건물 규모는 탑을 중심으로 짧은 날개축이 4층, 긴 날개축이 3층이며, 건축면적 983㎡(298평)에 연면적은 모두 2,880㎡(873평)에 이른다. 1층에는 탑 모서리에 주출입구가, 양쪽 날개에 교수연구실, 사무실, 특별열람실이 계획됐다. 짧은 날개축 2층부터 4층까지는 서고가 배치됐는데, 층고를 낮춰 탑의 2~3층, 두 개 층 높이와 일치시켰다. 한편, 탑의 3층 이상 각 방에는 민속자료와 미술품의 전시실이 놓인다. 긴 날개축 2층에 마련된 대열람실은 전교생의 반을 수용할 수 있는 250석 규모로서, 높은 천정과 화려한 고딕식 창이 특징이며, 각 책상에는 회전식 가죽의자 및 전기스탠드를 갖췄다.

이 건물은 착공 2년여 후인 1937년 9월 준공되는데, 본관처럼 규모와 시설 모두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경성제대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로 1교수1연구실 제도가 가능해져 일본 사립대학들로

부터도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도서관은 훗날(1957.10~1958.5) 서고동 후면이 뒤편으로 확장되고, 열람실동 3층에 교수실이 증축돼 총 4,089㎡(1,237평)의 연면적을 갖게 됐다. 지금은 대학원 건물로 사용되는 가운데, 건축사적 가치로 인해 본관처럼 사적(286호)으로 보호받고 있다.

#### 뾰족아치·소첨탑·돌출창 등 다양한 고딕건축요소 결합

이 건물에서 제일 눈에 띄는 요소는 전설했던 모서리의 5층탑이다. 탑 1층의 출입문은 직교하는 두 면의 아치 개구부 모두와 45° 각도를 이룬다. 그리고 탑의 계단실은 건물 전체의 중앙 수직동선을 담당한다.

탑의 평면은 자체만으로 완결된 정사각형이고, 네 모서리에는 팔각평면의 튜렛(turret)이 돌출돼 탑의 몸체보다 조금 위로 솟아 있다. 튜렛은 원래 중세 성곽에서 방어용 목적으로 설치됐고 후일 스코틀랜드에서 미학적인 요소로 발전했는데, 유럽과 미국 대학의 고딕 건물에서 자주 차용된 요소다. 이것은 본관의 중앙탑 모서리가 부속벽으로 마무리된 것보다 더 적극적인 마감 수법이라 하겠다. 여기서 튜렛은 탑 본체의 상부와 함께 여장(女牆)으로 처리됨으로써 안암의 캠퍼스에 고딕의 실루엣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도서관은 다양한 종류의 고딕적 건축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출입구와 창 프레임에 반복되는 뾰족아치가

다른 여러 뾰족아치를 두며, 상부는 여장으로 처리됐다.

#### 듀크대 도서관이 기본모델 '오천석 모교앨범설' 은 오류

아마도 보성전문 도서관 건축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면 그 디자인 연원에 대한 것이리라. 인촌과 박동진이 건물 설계를 논의할 당시, 보성전문에 재직하던 오천석 교수의 모교인 듀크대학 도서관 건물을 앨범에서 보고 참고했다는 일화 말이다. 《고려대학교 70년지》(1975)에 기록된 이 기사는 이후 정확한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됐고, 안암의 초기 석조건축물들과 듀크대학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을 낳아왔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우선 철학 및 교육학을 전공한 오천석은 1932년 4월 보성전문에 임용돼 4년간 재직했는데, 그가 학,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국의 대학은 각각 코넬, 노스웨스턴, 콜롬비아였다. 고로 그의 모교가 듀크라는 것은 오류다. 그리고 듀크대학 도서관을 참조한 경위에 대한 의문은 오천석의 '석탑야사' (《高友會報》, 1972.9.5)를 통해 대부분 해소된다. 이에 따르면 인촌이 그에게 미국 대학 가운데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문의했고, 마침 여러 대학의 카탈로그를 보유했던 오천석이 듀크의 신축 도서관을 보고 추천했는데, 인촌도 이에 만족해 그 건물을 본뜨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듀크의 고딕



보성전문 도서관의 현재 모습(위사진)과 건축 당시 기본모델이 된 듀크대학교 퍼킨스 도서관. 오천석 교수가 보유한 듀크대학 카탈로그를 참고해 지은 보성전문 도서관은 거칠고 둔탁한 디테일의 퍼킨스 도서관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한 맛을 느끼게 한다.

은폴이므로 이것이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이 됐음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퍼킨스의 디테일은 상당히 거칠고 둔탁해 안암의 도서관이 갖는 정교한 맛을 찾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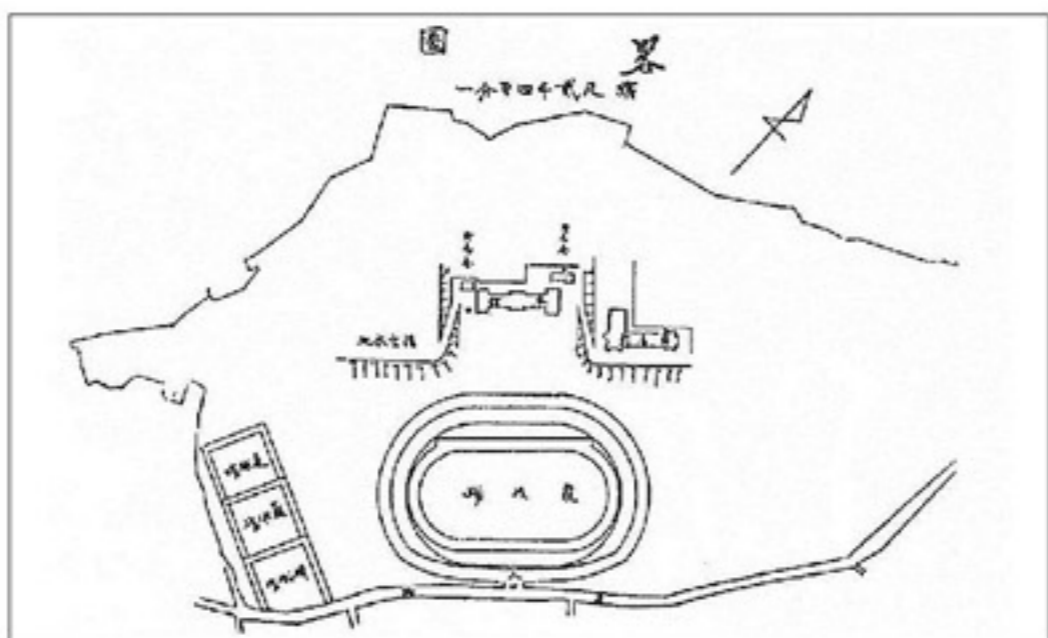
디테일의 유사성은 오히려 퍼킨스 근방의 데이비슨관(Davison Building, 1930)에서 발견된다. 이 건물 중앙에 놓인 탑은 팔각형 튜렛의 비레나 튜렛 개구부의 패턴 등이 안암의 것과 유사하며, 섬세한 디자인의 돌출창도 그렇다. 한편, 건물 모서리에 탑을 두고 날개 끝에 박공부를 계획한 보성전문 도서관의 구성은 퍼킨스 건너편에 위치한 듀크 학생회관(The Union)을 닮았다. 퍼킨스 도서관, 데이비슨관, 학생회관 등의 사진이 1930년대 초의 듀크대 요람에 출판된 바 있기에, 오천석이 소유한 카탈로그가 바

로 이 책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현섭, <보성전문대학교 도서관(1935~37)의 건축적 연원 탐구>, 2012.8).

요컨대 보성전문 도서관의 기본 골격은 퍼킨스 도서관을 모델로 했으며, 데이비슨관과 학생회관 등에서 디테일을 참조했던 듯싶다. 물론 듀크대학 역시 프린스턴과 시카고 같은 이전의 고딕식 대학을 모델로 했고, 그 뿌리가 다시금 중세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등으로 거슬러 올라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1936년도 보성전문 배치도. 본관 북동쪽에 도서관이 배치됐으며, 남서측의 강당부지에는 후일 서관이 들어선다. 건물 남쪽 전면에는 대운동장과 정구장, 농구장, 배구장 공간이 확보돼 있다.

그렇고, 긴 날개축의 부속벽이나 2층 대열람실 창의 꽃잎무늬 창틀이 그렇다. 또한 긴 날개축 끝의 박공면 소첨탑이나 돌출창 역시 전형적인 고딕건축의 요소다. 이 돌출창은 자체만으로도 폭이

식 도서관으로는 퍼킨스 도서관(Perkins Library)이 있었고, 1930년 건립됐으니 시기적으로도 '신축'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건물 모서리에 탑이 배치됐고, 그 모서리의 튜렛 및 상부 여장도 달